

전통설화에 나타난 복식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상징에 관한 연구

김 애 련* · 김 진 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Social Position and Status of the Dress Symbolism Described in the Traditional Korean Folktale

Ae Ryeon Kim* and Jin Goo Kim

Instructor,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02. 5. 1. 접수 : 2002. 7. 30. 채택)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how our people use the social position and status symbolism of the dress in focus of the Chosun Dynasty Period by analysis data of traditional folktale. This research material was analyzed social position and status symbolism of the dress with basis on *Korean Oral Literature* grand volumes of 82 publish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whole volumes of 7 of *Korean Literature Traditional ; Folktale* written by Kimhyunrwong. The methods of study is that first, selected part of describing social position and status of dress from the traditional Korean folktale. Second, summarized things classified such as clothes, shape of hair and belt. Third, analyzed social position and status of dress with basis on symbol theory to be pre-studied.

As a result, I can get the next conclusion.

First, in case of the dress symbolism of social position and status, we classify as class, occupation, surreal person.

Second, the changes of the social position and status showed upward position or downward position, and occupation change.

Third, symbolization of position disguise was classified disguise of social position, sex, occupation.

Key words: dress(복식), social position and status(사회적 지위 및 신분), symbolism(상징), traditional Korean folktale(전통설화).

I. 서 론

복식은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반영물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복식을 통하여 착용자의 심리적 측면 외에도 사회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인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성,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의례, 심

미성 등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복식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식이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징이란 내면적인 힘을 갖고 있으므로 인간의 내면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상징의 의미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인간의 외부적인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다. 상징의 의미가 보편성을 확보할 때 사람들이 그 의미를 공유하여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단서가 되며, 이러한 상징의 의미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간만이 갖는 상징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욕구 등을 창조하며, 복식에는 이러한 욕구가 상징적으로 잘 표출되어 있다. 그러나 복식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서 복식상징은 다양하고 다의적이다.

문학작품에는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잘 표출되어 있으며,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복식 또한 그러한 요소들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문학작품 중에서도 설화에는 한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신앙, 관습, 가치관, 생활양식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어느 시기에서건 해당 문화권의 시대상과 구성원들의 사회적 특성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복식연구에 좋은 자료이다.

국문학에서 선행된 설화연구는 많으며 최근에는 설화와 상징의 밀접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복식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의류학에서도 설화와 관련된 복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전통설화를 중심으로 복식연구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전통설화 속에서 우리 민족의 복식관련 내용을 찾아서 함축하고 있는 상징을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설화를 분석자료로 하여 복식관련 내용을 찾아내어 우리 민족은 복식을 어떤 상징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단, 상징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에 따른 복식상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설화와 전통설화의 선행연구

설화란 사실이나 허구에 관계없이 실제로 존재했

던 사실에 대해 서술한 이야기이며,¹⁾ 어떤 한 민족이 공동생활을 하는 와중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口碑文學을 이르는 것으로 민중에 의해 시작되고 구전되는 이야기이다.

설화는 문헌설화와 口傳說話 혹은 口碑說話로 구분된다. 구비와 구전은 대체로 같은 뜻이지만 구전은 '말로 전함'을 뜻하는데 비해서, 구비는 '입으로 만든 비석'이라는 의미로서 입으로 전하되 비석처럼 오래 전승되는 문학을 말하는 것으로 불변성이나 고정성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헌설화란 입으로 전해져오는 구전설화가 분자로 기록된 것이며, 구전설화에는 사회의 저변을 이루는 민중들의 의식이 용해되어 있어 한 민족의 역사, 신앙, 관습, 풍속, 가치관, 생활양식, 경험, 소망 등이 반영되어 있다.

전통설화는 국민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설화이며²⁾, 우리나라의 전통설화연구는 1920년대 구비문학의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전통설화의 일차적 연구 대상은 현재 구술현장에서 전승되고 있는 구전설화이며, 이차적 연구대상은 과거에 문자매체를 통해서 정착된 기록구비문학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설화 조사 방법인 演行 중심의 현장론적 방법(Performance centered Approach)은 1946년에 Stith Thompson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조사법으로 설화 구술현장의 연행상황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

전통설화관련 문헌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화기 이전에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중요한 문헌으로 손꼽히며,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白雲小說』 등 많은 문헌들이 있다. 광복 이후에는 문화공보부에서 1969년부터 1978년까지 전국 규모의 한국민속 종합보고서 전 9권을 출간하였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전국적으로 설화를 채록한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을 출판하여 구비문학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다.

설화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설화연구는 몇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중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전국 각 도별로 설화를 채록하는 경우이다. 그 외, 선행된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2nd. ed., Vol. 10, (Oxford: Clarendon Press, 1989), p.181.

2) 동아출판사(편), 동양새국어사전 (서울:동아출판사, 1990), p.1087.

3) 김태근 외 5인, 한국구비문학개론 (서울: 민속원, 1995), pp.29-42.

장덕순은 구전설화 및 문헌설화의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고 설화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고찰한 다음, 설화와 기록문학 작품과의 관계를 다루었다⁴⁾. 장덕순의 연구는 설화를 현대소설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설화 자체가 문학의 대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 준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손정희는 한국의 풍수설화를 연구하였는데⁵⁾,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설화를 연구한 것이 타언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배원룡은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대상으로 유형분류 및 유형별 전승 양상, 기호학적 구조분석과 그 의미, 현대문학 작품에서 설화의 수용 양상과 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⁶⁾. 이 논문은 한 가지 설화를 대상으로 구조분석과 유형분류를 하여 설화의 작품론을 연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박현국은 설화의 신화적 구조를 분석하여 상징의 의미를 연구하였다⁷⁾. 이 논문은 설화의 내제적인 구조와 상징을 분석하여 의미를 규명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설화연구에서 상징이 중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임을 밝힌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문학에서 선행된 설화연구는 구비설화와 문헌설화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설화가 현대소설로 수용되는 과정을 고찰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제에 해당되는 설화를 대상으로 유형분류를 하여 분화구조와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국문학에서 이루어진 설화관련 연구는 다양하지만, 선행된 설화관련연구의 패러다임이 복식상징을 고찰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화에 나타나는 복식의 내용만 발췌하여 상징을 분석할 것임을 밝힌다.

2. 상징이론과 복식

1) 상징이론

상징이란 말로는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을 형상화 하는 것이며, 원초적이며 내면적인 힘을 내포하고 있다. Ricoeur는 상징이란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상징에 참여하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있다고 하여 상징의 내면적인 깊이와 역동성을 강조하였다⁸⁾. 한편, 철학적 관점에서 상징론을 정립한 Cassirer는 상징이 인간의 내부와 외부의 세계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다⁹⁾.

상징에 대한 관심이 이론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문학운동인 상징주의이다. 이후, 문학에서 뿐 아니라 인류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미학, 철학, 종교학 등 여러 인접학문에서 각 분야의 관점으로 상징연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¹⁰⁾.

신화의 상징은 인류문명의 모든 민족에게서 공통되는 것으로 상징연구는 신화에서부터 비롯된다. 신화의 상징을 분석한 Turner는 신화연구가 종교에 의해 증명된 후 문화의 하위체제인 친족조직, 경제조직, 법조직, 정치조직의 특성과 비교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의식의 한계점인 識闕 때문에 보편성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풍부한 심리적 내용을 갖는다고 하였다¹¹⁾. 이는 신화에는 사회적, 문화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신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상징은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일

4) 장덕순, *한국설화문학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0).

5) 배중탁,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6)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설화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93).

7) 박현국, "설화의 신화적 구조와 상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8) P. Ricoeur, *The Symbolism of Evil* (New York: Harper and Row, 1967), p.15.

9) Ernst Cassirer, *An Essay on Man-An Introduction to a Philosophy of Human Culture*, 최명관(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화, 철학서설* (서울: 서광사, 1988), p.15.

10) Gilbert Durand, *Introduction a la mythologie*, 유평근(역), *신화비평과 신화분석 -심층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살림출판사, 1998), pp.43-45.

11) Victor W. Turner, "Myth and Symbo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10 (New York: Macmillan Co. and The Free Press, 1968), pp. 578-580.

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Durand도 상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존재론, 사회중심적인 태도, 문화 중심주의적 존재론 등의 방법론을 각각 분리하여 연구하기 보다는 인류학적 견지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상징에서 표출되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에는 도덕, 祭儀, 사회적 관습, 계급, 신분, 직업, 언어, 미학 양식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¹²⁾.

Murkerjee에 의하면 상징은 개인의 인성뿐 아니라, 도덕률, 성문법, 사회조직 중 그 어떤 것보다도 쏠 사회과정에 대한 최상의 단서가 되며, 가장 논리적인 의사전달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¹³⁾. Murkerjee의 이러한 이론체기는 상징이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측면과 함께 객관적이며 사회, 문화적인 측면까지 함유한 개념임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상징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들은 상호관계 하에 각각의 특성들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 복식상징

인간의 상징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물질적·사회적·심리적 욕구 등을 창조하며, 복식에는 이러한 욕구가 상징적으로 잘 표출되어 있다. 그러나 복식이 가지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서 복식상징은 다양하고 다의적이다. 복식상징 연구의 관점에 대해서, Roach와 Eicher는 복식이 형태뿐 아니라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의미분석을 위해서는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적, 문화적, 철학적인 원인들을 고찰하여야 한다고 하여¹⁴⁾ 인류학자들의 상징 연구의 관점과 동일한 견해를 밝혔다.

복식상징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Rosencranz는 복식에 반영된 상징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하여

Clothing TAT(Thematic Apperception Test: 주제통각 검사)를 최초로 고안해 냈으며, 복식상징을 나타내는 다양한 측면들에 개성 對 동조성, 관습 對 유행, 지위, 직업과 여가, 성, 성적 매력, 연령, 취향 등을 포함시켜 복식상징 연구를 하였다¹⁵⁾.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복식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전달하며, 그 정체성이 상징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상징연구이므로 정체성과 상징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식 정체성을 연구한 Kefgen과 Specht는 개인의 정체성을 인성, 가치관, 태도, 흥미, 생활양식 등으로 범주화하면서 인성, 가치관, 태도 등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고 하였다¹⁶⁾. 한편, Roach와 Eicher는 복식에서 전달되는 것으로 연령, 성, 사회적 지위, 학력, 종교 등이 있으며, 사람들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복식의 의미를 사용하며 그 의미에 기초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이란 친족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측면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사회구조에는 복식의 기술과 도덕적, 심미적 기준이 포함된다고 하였다¹⁷⁾. 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복식의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복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복식의 기능은 복식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식상징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김진구는¹⁸⁾ 한국복식의 기능적인 측면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사회는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전달하는 수단이 보호의 수단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여 한국복식이 갖는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2) Gilbert Durand, *L'imagination symbolique*, 진형준(역), *상징적 상상력*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pp.113-118.

13) R. Mukerjee, *The Symbolic Life of Man* (Bombay: Hind Kitabs Limited, 1959), pp.8-10.

14) M. E. Roach and J. B. Eicher,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3), pp.112-118.

15) Mary Lou Rosencranz, *Clothing Concepts: A Social-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Macmillan Co., 1972), pp.95-249.

16) Mary Kefgen and Phylis Touchie 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1), pp.19-54.

17) M. E. Roach-Higgins and J. B. Eicher,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10 No. 4 (1992), pp.1-7.

18) Jin Goo Kim, "Korean Costume: An Historical Analysis," Ph.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77).

최근에 진행된 우리나라 학자들의 복식상징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유경은 Charles Dickens의 작품 속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을 연구하였다¹⁹⁾. 이유경은 상징을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초현실적 측면, 기타와 인구통계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복식 상징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측면에 관한 복식 상징성 묘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식의 사회적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이유경의 복식상징성 연구는 의류학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설을 자료로 복식상징성 연구를 시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김희선은 Pearl S. Buck의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 정체성 연구를 하였다²⁰⁾. 김희선은 정체성을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심리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여 복식 정체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난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이었으며, 문화적 정체성, 심리적 정체성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는 복식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제도와 관련있는 신분 정체성이나 역할 정체성을 주로 나타냄을 밝히는 것으로 복식의 사회적 중요성을 재 입증한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리 민족이 복식을 도구로 하여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의 상징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服飾이라는 용어는 의복, 장신구, 화장품 뿐만 아니라 머리형태와 복식에 수반되는 행동까지 포함하며, 장신구에는 신발, 허리띠 등이 포함된다. 외모는 얼굴이나 신체특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연구방법은 전통설화에서 복식관련 내용을 발췌한 후, 의복, 머리형태, 장신구 등으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요약한 다음, 복식에 표출된 사회적 지위 및 신

분상징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된 상징이론과 복식상징이론을 바탕으로 복식에 표출되는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상징성을 찾아내어, 사회적 지위 및 신분상징,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이동,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위장 등으로 구분하여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 구비문학 대계 전 82권과 김현룡著的 한국 문헌설화 전 7권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인용되는 전통설화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에서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복식은 존재해 왔으며,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은 개인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어 복식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복식 중에서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을 상징하는 것을 찾아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I. 사회적 지위 및 신분상징

1) 계급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복식이 사용되는데 설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宣祖』²¹⁾를 보면, 명종의 익선관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명종 때 세자가 사망하자 조카들을 시험해 보려고 “너희들 머리카기를 알아보려고 하니 각자 이 翼善冠을 써보라” 하고 왕의 관을 내놓았다. 그러자 선조는 두 손으로 관을 받들어 왕 앞에 놓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찌 임금의 관을 보통 사람이 쓸 수 있습니까?” 하고 물러나 앉으니 명종이 전위할 뜻을 갖게 되었다.

익선관은 왕이 집무할 때 착용하는 常服에 쓰는 왕관으로 왕을 상징한다. 설화에서 선조가 명종의

19) 이유경, “Charles Dickens 소설에 나타난 복식 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20) 김희선, “Pearl S. Buck 소설의 복식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21) 김현룡, 『宣祖』, 한국문헌설화 1권, (서울:전국대학교 출판부, 1998), pp.330-331.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씨 부인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제1권, 제7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pp.913-914.

왕관을 받들어 왕 앞에 놓고 머리를 조아리는 행동은 왕관에서 상징되는 위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 것이다.

『박씨 부인 이야기』²²⁾에는 조복과 비단으로 만든 쌍학흉배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이진사가 조정에 들어갈텐데, 어떻게 하다가 담뱃불에 흉배를 뒀어 조복에 있는 거 흉배가 이러니 어떡허난 말야 빌 아침에 조정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러자 못생기고 냄새 나는 며느리가 비단을 오려 가지구서너이 흉배를 맹글었어 쌍학 놓고, 모금에서 꼭 맨들었어. 모판도 보지 않고 맹글었어요.

朝服이란 朝會에 참여할 때 입는 백관복으로 백관의 신분을 나타낸다. 설화의 내용에는 조복에 흉배가 장식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흉배는 백관의 상복에 다는 장식으로써 관품에 따라 흉배의 무늬가 달라져 쌍학 무늬는 등장인물이 문관 당상관임을 상징한다.

『李忠武公 妾』²³⁾에서는 붉은색 비단철릭이 나타난다. 다음과 같다.

이충무공 첩의 얼굴이 못생겨 마음에 차지 않아 했다. 하루는 평안 감사로부터 급히 오라는 연락이 왔는데, 첩은 “어려운 시기에 급히 부르는데 짐작도 못하고 가십니까?” 하면서 새로 지은 붉은색 비단 철릭을 내주면서 입으라고 했는데 철릭이 너무 몸에 잘 맞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붉은색 비단철릭은 백관들이 平居時 便服으로 착용하거나, 왕의 행차시나 국란을 당하였을 때 용복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 설화의 등장인물인 이충무공은 무관이므로 붉은색 비단철릭은 무관의 용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붉은색 비단철릭은 이충무공이 백관임을 상징한다.

『의적 갈봉이』²⁴⁾에는 부녀들의 큰머리라고 하는 가발, 원삼, 도포 등이 나타난다.

옛날에 양반은 제사를 지낼 때, 부녀들은 큰머리라고 하는 기 있어. 여기 가발 걸은 기 있어.

큰 머리라고 하고 원삼이라고, 여 도포걸이 해 입고, 막 재사 지내고...

가발같은 큰머리는 궁중에서나 양반부녀들이 예장할 때 머리에 얹는 가채와 같은 큰 머리를 말하는 것이며, 원삼은 서민들에게 혼례복으로 허용되었지만 양반부녀에게는 예복이므로 큰머리와 원삼은 양반부녀를 상징한다. 한편, 도포는 士人들의 걸음으로 士人階級 남성을 상징한다.

2) 직업

직업을 나타내는 데는 복식이 사용되며 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이완대장과 소설의 지혜』²⁵⁾에서는 이완대장이 조복을 벗고 무장을 하고 투구를 갖춰 입고 조정에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효종대왕 시절에 이완대장이 명장이었는데, 하루는 한 밤중에 갑자기 입궐하라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朝服을 막 입고 나서는데 부인이 “오밤중에 상감이 입궐하라는 명령에 文官이면 상관없지만 武官인데 그냥 朝服을 입고 가느냐” 면서 무장을 하구 가라고 하여 투구를 갖춰 입구...

朝服은 백관의 조회시 옷으로 백관을 상징하며, 무장과 투구는 군인의 신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복을 벗고 무장하고 투구를 갖춰 입는 행동은 등장인물이 높은 계급의 武官임을 상징한다.

『홍장군 해골 물어주고 장가간 총각』²⁶⁾과 『여장군 뉘를 달랜 이서구』²⁷⁾를 보면, 구척장검, 투구, 갑옷, 장창 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홍장군 해골 물어주고 장가간 총각』에는 한 노처녀가 서울로 가자 잠을 잤는데 꿈에 허연 백발 노인이 긴 장죽을 물고 허연 백말을 타고 九尺長劍을 들고 턱 들어 왔어는.

『여장군 뉘를 달랜 이서구』에는 어떤 대장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장창을 들고 들어오는데 키가 구척장신이고 워낙 장엄하게 생겨서 당

23) 상계서, “이충무공 첩”, 제3권, p.440.

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계서, “의적 갈봉이”, 제8권 제3호, p.90.

25) 상계서, “이완대장과 소설의 지혜”, 제1권 제9호, pp.93-94.

26) 상계서, “홍장군 해골 물어주고 장가간 총각”, 제2권 제8호, p.302.

27) 상계서, “여장군 뉘를 달랜 이서구”, 제3권 제4호, p.186.

최 바라보기가 무서운 장군이 들어 오거든
구척장검은 아주 긴 칼을 말하는 것으로 군인의 신분을 상징한다. 또한 구척장검의 키와 장엄하게 생긴 외모는 군인다운 외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투구, 갑옷, 장창 역시 군인의 전형적인 武裝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유정』²⁸⁾에는 유정의 깎은 머리에 대해 묘사되어 있다.

선조 때 유정이 우리나라의 豪傑이었으며, 나라의 종묘를 지을 때도 僮軍을 동원해 공사를 도왔는데, 머리는 깎았고 하얀 수염을 길게 가슴까지 오도록 기르고 있었다.

유정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高僧으로서 국가의 大事에도 참여하는 큰 인물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머리를 깎는 것은 승려의 대표적인 머리모습으로서 승려를 상징한다.

『마누라의 외도잡기』²⁹⁾에는 굴갓과 장삼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내외가 사는데 자기 부인이 오입을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켜 봐야 모르겠단 말야. 그레 하루는 충청북도에 불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숨어서 보니까 말이야 마당에 굴갓을 쓰고 장삼을 입고 이런 중이 들어 온다 말이야.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나가서 연결해 들어 아랫목에 모시거든.

굴갓은 승려들이 쓰는 모자이며, 장삼은 대표적인 승복 중 하나이므로 굴갓과 장삼은 승려를 상징한다.

『보역사』³⁰⁾, 『노루가 잡아준 집터와 三足狗』³¹⁾, 『황지못 전설』³²⁾, 『꿀두바위 꿀두각시 전설』³³⁾에서는 목탁, 염주, 九折六杖, 바람 등의 승려의 부속품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보역사』에는 어떤 남자가 시집간 딸이 보고 싶어서 딸 집에 갔는데 딸의 시아버지가 큰 집에 가서 제사를 보고 올때니 행랑방에서 쉬라고 하

였다. 그레 자는데 웃목에 말이야 목탁이 하나 있단 말이야 중이 두드리는 목탁이 있으니까 그걸 툭툭 두드려 봤다 이 말이야. 두드려 보구 잘려고 하는데 살며시 들어와 웃을 벗는 사람이 있어 보니 사 돈택이란 말이야.

『노루가 잡아준 집터와 三足狗』에는 늙다 늙은 중이 구절육장 짚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팔에 걸고 상좌 앞세우고 내로거든. 내로다가 딱 서태이.

『황지못 전설』에는 한 중이 황지라는 곳의 부자집에 가서 시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구두쇠인 주인이 중 바람에다 솟똥어리를 담아줬으니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

『꿀두바위 꿀두각시 전설』에는 그 중은 바람을 짚어지고 가고 뒤에 따라 오다 소리 가 나니 확 돌려다 봤다는 거야.

목탁과 염주는 승려가 염불할 때 사용하는 것이며, 단주는 54개 이하의 구슬을 꿰어 만든 염주로서 염불시 사용하는 부속품이고, 九折六杖은 몹시 구부러진 여섯 개의 고리가 달린 승려들의 지팡이이다. 바람은 승려들이 길 갈 때 등에 지는 주머니로써 승복에 따르는 부속품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목탁, 육환장, 염주, 단주, 바람 등은 등장인물이 승려임을 상징한다.

『寶壤』³⁴⁾에 보면, 金襴袈裟가 묘사되어 있다.

고려초기, 보양스님이 서해를 건너는데 용이 나타나 용궁으로 맞이해 念經을 부탁하고는 그답례로 金襴袈裟 한 벌을 선물했다.

금란가사는 지위가 높은 승려의 법복이다. 袈裟는 불교의 법복으로 그 형태는 어깨에 두르는 것이며, 승려의 직급에 따라서 직물과 條數가 달라진다. 금란가사는 황금색 견직물로 만든 것으로 條와 日, 月, 天字와 王字 등의 무늬가 있는 것으로 높은 지위의 승려를 상징한다.

28) 상계서, “유정”, 제5권, pp.72-73.

29) 상계서, “마누라의 외도 잡기”, 제2권 제1호, p.51.

30) 상계서, “보역사”, 제2권, 제1호, p.96.

31) 상계서, “노루가 잡아준 집터와 三足狗”, 제6권 제2호, p.807.

32) 상계서, “황지못 전설”, 제1권, 제8호, p.501.

33) 상계서, “꿀두바위 꿀두각시 전설”, 제2권 제8호, p.695.

34) 상계서, “寶壤”, 제7권, p.68.

3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계서, “생금 텅어리”, 제7권 제6호, p.601.

『생금 덩어리』³⁵⁾를 보면, 冠網을 하지 않은 남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백정은 그 冠網을 안 했거던, 그래노이 그래 관망을 한 참 양반이 들어 온다 들오이 그마 이 놈이 겁을 내가주고 마 벌벌 떨듯한다.

冠網이란 것과 망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혼남성의 상징적인 머리모습이다. 冠網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에서 대표적인 하천인에 속했던 하인도 기혼남성이려면 기본적으로 하였던 머리모습이다. 따라서 백정의 관망을 하지 않은 모습은 하인보다 못한 가장 비천한 신분을 상징한다.

3) 초현실적 인물

초현실적 인물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복식이 사용되는데 설화에는 그러한 예들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나무꾼과 선녀』³⁶⁾에는 나래옷, 선녀옷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선녀들이 내려와 옷을 벗어 놓고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선녀의 나래옷을 감춰다. 다른 선녀들은 옷을 입고 다 올라갔는데, 선녀 하나는 못 올라가고 총각허구 아들 둘을 낳구 살았다. 자식을 둘 씩이나 낳자 안심하여 선녀옷을 내렸더니 어린애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나래 옷은 하늘나라의 옷으로 선녀를 상징한다. 설화에서 선녀옷을 분실하는 것은 선녀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차단되는 것으로 선녀의 신분이 박탈됨을 의미한다. 한편, 다시 나래옷을 되돌려 받는 것은 선녀옷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선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래옷은 선녀를 상징한다.

『막을 수 없는 천생연분』³⁷⁾과 『지붕에 버섯나는 유래』³⁸⁾를 보면, 신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막을 수 없는 천생연분』에는 품체도 좋고 눈썹도 희고 수염도 하얀 노인네가 중방에 앉아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연분을 맺어주는 직분을

맡고 있다고..

『지붕에 버섯나는 유래』에는 신선이 와 가지고는 옥통소를 부르는데, 세상 생기기도 잘 생겼고 옷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좋은 비단옷으로만 입었고..

두 편의 설화에서는 신선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서 좋은 품체, 흰 눈썹과 수염,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좋은 비단 옷 등으로 신선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복식과 외모특성 등이 신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호식할 팔자』³⁹⁾에는 옥황상제의 옷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늘 옥황님이 왔는데 이 세상 옷을 안 입고 전신에 금이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머리에 쓰는 것도 하얀 거 쓰고 신도 이상한 거 신고 밧을 부리는데

설화에서는 옥황상제의 옷을 이 세상 옷이 아닌 옷, 이상한 신, 머리에 쓰는 하얀 것, 전신에 금이 번쩍번쩍한 옷 등으로 묘사하여 이러한 옷차림을 옥황상제의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2.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이동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이동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복식이 사용되며 설화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볼 수 있다.

『成宗』⁴⁰⁾에 보면, 金帶와 銀帶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성종이 밤에 承旨들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해 취하게 한 다음 환관을 시켜 承旨들의 銀帶를 풀고 대신 金帶로 바꿔 매게 한 후 집에 보냈다. 다음날 일찍 부르니 모두 金帶를 그대로 띠 채 나오자, 이미 金帶를 띠었으니까 품계를 金帶에 맞게 올려줄이 올라다며 직급을 올려 주었다.

금대와 은대는 백관의 지위를 나타내는 허리띠이다. 설화에서는 은대를 승지들이 맨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조선시대 백관복의 핵대는 품계에 따라서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개서, “나무꾼과 선녀”, 제1권 제3호, pp.69-70.

37) 상개서, “막을 수 없는 천생연분”, 제3권 제2호, p.93.

38) 상개서, “지붕에 버섯나는 유래”, 제3권 제1호, p.567.

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개서, “호식할 팔자”, 제7권 제6호, p.709.

40) 상개서, “成宗”, 제2권, p.125.

재료, 장식 등이 달라져 一品 犀帶, 正二品 鍍金帶, 從二品 素銀帶, 正三品 鍍銀帶, 從三品 素銀帶, 四品 素銀帶이다. 따라서 銀帶에서 金帶로 바뀌 메는 것은 正二品으로 백관의 지위가 상향이동 되었음을 상징한다.

『영조 후비 김씨』⁴¹⁾에는 왕비의 대례복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민비가 내일이면 생신인데, 大禮服을 입고 나왔으면 만조백관이 와서 모두 조활하구 이럴텐데, 폐서인이 되어 대례복도 못 입으니 어떤 놈 하나 뭐 갈 놈이 있는가

왕비의 대례복은 왕비가 중요한 행사에 착용하던 예복으로서 왕비를 상징한다. 그러나 대례복을 못 입는 것은 민비가 왕비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평범한 신분으로 하향이동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黃喜』⁴²⁾를 보면, 귀양을 간 황희의 거지와 같은 남루한 차림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황희가 양녕의 폐세자 문제를 반대하여 귀양을 갔는데, 6년후 태종이 황희를 다시 불렀는데 남루한 차림이 거지와 같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남루한 차림은 가난하거나 비천한 신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거지와 같은 남루한 차림은 황희가 과거의 정승신분에서 귀양인으로 하향이동된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劉克良』⁴³⁾에는 당상관에 오른 등장인물이 자신의 부친의 출신을 알고는 출신에 맞는 천한 옷으로 바꿔 입는다.

유극량이 무과급제하고 堂上에 오르고 난 후 모친을 통해서 자신의 부친이 종의 신분임을 알았다. 그 후, 유극량은 천한 옷을 입고 그 주인집을 찾아가 사실을 고하니, 주인이 임금에게 상소하여 면천해 주었다.

옷의 상태를 묘사할 때 좋은 옷, 낡은 옷, 비싼 옷 등으로 묘사하지만 설화에서와 같이 천한 옷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으므로 천하다는 수식 자체만으로도 등장인물의 신분이 천한 종 출신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종의 신분에서 과거시함을 보는 것은 위법이며, 유극량이 과거에 급제한 후에 자신의 본래 신분이 종이였음을 알고 천한 옷을 입은 것은 자신의 본래 신분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옷을 입었음을 상징한다.

『金孝誠』⁴⁴⁾에서는 등장인물인 여성이 깎은 머리, 검정모시의 증옷을 지어 입고 절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조선초기에 김효성이 많은 첩을 두었고 부인은 질투가 심했다. 하루는 부인이 머리를 깎고 저 검정모시로 증옷을 지어 입고 절을 찾아 나갔다.

깎은 머리와 승복은 승려의 신분을 나타낸다. 설화에는 검정모시로 증옷을 지어 입는다고 하면서 승복의 색을 검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승복의 색은 일반인들이 服色으로 사용하지 않는 색을 사용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검정색은 아니다. 설화에서는 승복의 진한 회색이 검정색과 비슷해서 검정색으로 묘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머리를 깎고 증옷을 지어 입은 의미는 등장인물이 평범한 부인에서 승려라는 신분으로 이동되었음을 상징한다.

『金時習』⁴⁵⁾에는 김시습이 머리를 깎고 승이 되었다가 머리를 기르고 환속한 후, 다시 머리를 두타형으로 깎고 승이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조선초기에 김시습은 세조의 즉위를 슬퍼하며 머리를 깎고 승이 되었는데, 성종 12년에 갑자기 머리를 기르고 환속했다. 얼마 후 아내가 사망하니 다시 출가해 승이 되어 머리를 두타형(頭陀形)으로 하고...

頭陀란 번뇌를 버리고 탐심이 없이 깨끗하게 불법을 닦는 승려는 말하는 것으로 두타형 머리란 승려의 깎은 머리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속인의 머리는 기르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왔다. 그러므로 신분

41)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전계서, 『영조후비 김씨』, 제2권 제6호, p.83.

42) 김현룡, 전계서, 『황희』, 제1권, p.77.

43) 상계서, 『劉克良』, 제3권, p.490.

44) 상계서, 『金孝誠』, 제3권, p.361.

45) 상계서, 『金時習』, 제5권, p.86.

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계서, 『박어사의 간부퇴치담』, 제1권 제1호, p.389.

의 변화에 따라서 출가시 頭陀形으로 머리를 쥐고, 환속시 머리를 기르는 것은 승려에서 속인으로서의 신분이동을 상징한다.

『박어사의 姦婦退治譚』⁴⁶⁾을 보면, 삼년지나 소복을 벗으면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삼년이 들어가니 삼년지나 소복 벗으면 나허구 백년기약허구 잘 안 살겠나?

소복은 등장인물이 喪中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삼년지나 소복을 벗으면의 의미는 喪制의 신분에서 벗어남을 나타낸다. Keesing은 전통적으로 급기와 의례가 인간의 생활주기 속에 있는 신분의 변화를 극화하고, 그것에 문화적인 표현을 부여한다고 하였다⁴⁷⁾. 이러한 문화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년상을 치르는 동안 결혼과 같은 행사를 치르지 않고 자중하는 모습은 喪의 관습이다. 따라서 삼년지나 소복을 벗은 후 백년기약하여 살자는 것은 喪制의 신분에서 신부의 신분으로 변화하는 것을 상징한다.

3.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위장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복식은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런 예들은 설화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숙종대왕의 강원도 순행기(2)』⁴⁸⁾에서는 왕이 금관을 벗어 던지고 용포를 벗은 후 도포를 입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金冠을 획 집어 던졌부고 龍袍를 훌렁훌렁 벗고난 뒤에 빼얼건 道袍를 착 입고

금관과 용포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며, 도포는 士인의 걸음이다. 따라서 금관과 용포를 벗고 도포를 입는 것은 왕이 巡行을 위한 微服차림으로서 왕의 신분을 사인의 신분으로 위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노총각을 부자 과부에게 증매한 박문수 어사』⁴⁹⁾와 『개 임자 심판해 준 박문수』⁵⁰⁾를 보면, 어사를 다

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노총각을 부자 과부에게 증매한 박문수 어사』에는 어사라면 繡衣使道라고 그러합니다.

먼저 속옷에 수를 놓고 마패 가지고, 걸은 수수한 선비 모양으로 옷을 채리고.

『개 임자 심판해 준 박문수』에는 박문수가 팔도를 봉명사신(奉命使臣) 얻어가자구, 물론 그 마패를 속으로 단단히 찻지마는 패립팔이인 거지행색을 하구선.

마패는 관원이 지방출장을 할 때 역마징발을 하던 증명패이며, 패립팔이는 弊袍破笠을 말하는 것으로 袍는 헤지고 갓은 부서진 거지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편의 설화에서는 어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수를 놓은 속옷, 마패 등으로 묘사하여 어사가 수수한 선비모양의 옷이나 폐포파립으로 차려 입는 것을 어사에서 가난한 선비로 신분을 위장하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다.

『인삼 덕에 양반된 이춘보』⁵¹⁾에는 정자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원님이 程子冠을 하나 쥐 이춘보가 집에 내려가서 양반 노릇을 하고... 정자관 이놈 쓰고 있다고.

정자관은 양반의 관모이다. 士人是 벼슬을 하지 않은 양반계급으로 조선시대는 신분형 사회제도였기 때문에 신분구분을 위한 목적에서 지위나 신분에 따라 관모의 종류가 달랐다. 따라서 정자관 하나로 양반노릇을 하는 것은 등장인물이 상민에서 양반으로 신분위장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조판서 아들』⁵²⁾에는 한 종이 집안에서 정자관을 착용하고 있다가 양반을 보고는 정자관을 벗고 절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송진사가 옛날 노비들이 살고 있는 고을에 가니 종들이 모두 양민행체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 한 큰 집에 들어가니 노인이 정자관을 쓰고 아이들 글을 가르치고 있다가 송진사

47) Roger M. Keesing, 김경수(역), 『현대문화 인류학』(서울: 현음사, 1993), p.145.

4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개서, 『숙종대왕의 강원도 순행기(2)』, 제7권, 제13호, p.531.

49) 상개서, 『노총각을 부자과부에게 증매한 박문수 어사』, 제5권, 제2호, p.36.

50) 상개서, 『개 임자 심판해 준 박문수』, 제1권, 제7호, p.1027.

51) 상개서, 『인삼 덕에 양반된 이춘보』, 제6권, 제4호, p.40.

52) 김현룡, 전개서, 『조판서 아들』, 제4권, p.111.

를 보고는 정자관을 벗고 절하며 맞았다.

정자관은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들이 집에서 설 때 맨 상투로 있기 곤란하여 머리에 쓰던 것으로 士 人의 신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노비가 집 안에서 관을 쓰는 행동은 노비라는 신분을 사대부의 신분으로 위장하였음을 상징한다.

『金進士』⁵³⁾에서는 도적이 역줄옷과 비장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진사가 도적괴수의 꺾에 속아 새 두목이 된 후, 주진사 집을 털기위해 도적들에게 역 줄옷을 입히고 자기는 비장옷을 입고 위장을 했다. 역줄옷과 비장옷은 도적이거나 등장인물들의 위협한 입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므로 역줄옷과 비장옷은 등장인물이 도적에서 역줄과 비장으로 신분 위장하였음을 상징한다.

『李·金 親友』⁵⁴⁾에는 여성이 소복차림을 하여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다른 사람들의 옷을 훔쳐가 버렸다고 묘사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김씨가 한 주점에서 자는데 소복 여인이 나타나 남편의 원수를 갚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여인이 의복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소복차림은 喪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喪中인 사람들에게는 의심을 하지 않고 관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등장인물은 소복으로 喪制의 신분을 위장하여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획득하였기 때문에 소복은 상제의 신분으로 위장하였음을 상징한다.

『어우동』⁵⁵⁾을 보면, 양반부녀인 어우동이 여자종의 옷을 입고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어우동은 응문원 지사 박윤창의 딸로 첫 결혼 생활에서 銀匠의 늪뎀한 모습에 혹해 여자 종의 옷을 입고 있다가 내실로 끌어 들여 통정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성품이 방탕하여 얼굴이 예쁘

게 생긴 여자 종과 함께 거리낌 없는 음행을 자행했다. 그러한 행동의 일환으로 밤에 여자종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길에 나가 미모 남자를 유인해....

여자종의 옷은 여자종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양반부녀인 어우동이 여자종의 옷을 입는 것은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남성과 음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양반부녀에서 종의 신분으로 위장한 것이다.

『여자무당』⁵⁶⁾에는 한 관장이 여성의 머리쓰개인 너울을 착용하여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중중 때 한 관장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여자무당이 관장에게 자신의 의상을 입히고 머리에는 너울을 쓰게해 여자로 변장시켰다.

너울은 조선시대 궁중과 양반계급 여성의 머리쓰개로써 서민부녀들에게는 금지된 지위상징적인 품목이다. 따라서 관장이 머리에 쓴 너울은 남성이 양반부녀로 신분위장하였음을 상징한다.

『순안어사』⁵⁷⁾에는 한 기생이 순안어사에게 여성의 머리쓰개인 장의를 입고 구경하러 가자고 조르는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에 순안어사를 유혹한 기생이 자기 어머니의 검정 장의를 입고 여자로 변장해 구경하러 가자고 졸랐다.

長衣란 장옷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부녀들의 외출시 쓰개이다. 따라서 설화에서 기생이 순안어사에게 검정 장의를 입히려는 것은 남성을 여성으로 신분을 위장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갓골 샌님』⁵⁸⁾에 보면, 한 승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성의 남편이 잘 때 중옷과 고깔을 착용하게 하고,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한 중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그 여자의 남편이 잘 때 남자에게

53) 상개서, “金進士”, 제2권, p.468.

54) 상개서, “李·金 親友”, 제2권, p.292.

55) 상개서, “어우동”, 제4권, pp.236-237.

56) 상개서, “여자무당”, 제4권, pp.400-401.

57) 상개서, “순안어사”, 제4권, p.412.

5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개서, “갓골 샌님”, 제2권, 제1호, p.122.

중옷을 만들어 입혀 놓고, 고깔까지 해 갖고 말
이야. 그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훌쩍 깎
겨서 중옷을 입혀 놨단 말이야.

고깔은 僧冠이며, 상투를 잘라 머리를 깎이는 것
은 전형적인 승려의 머리모습이다. 따라서 고깔을
씩우고 중옷을 입히며 상투를 잘라 머리를 깎는 행
동은 속인에서 승려의 신분으로 위장시키는 것을 상
징한다.

『이광덕』⁵⁹⁾을 보면, 어사의 폐포파립과 하얗고 거
칠지 않은 손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에 이광덕이 암행어사가 되어 弊袍

破笠으로 모습을 숨기고 여러 고을을 돌고 있는
데, 암행어사가 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리하여 진원지를 추적해 보니 7살먹은 童婢의
입에서 나왔음을 알고 불러 물어보니 다음과 같
이 대답했다. “집밖에 두 걸인이 있어 봤더니 차
림새는 걸인이지만 손이 하얗고 거칠지 않아 의
심을 가졌으며, 걸인이 옷을 벗어 이를 잡은 후
옷을 입는데 다른 걸인이 상전 모시듯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을 보고 암행어사임을 알아 차렸습니
다.”

弊袍破笠은 거지와 같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 1>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상징 · 이동 · 위장

상징		복식				
		의복	두식(頭飾)	장신구 및 부속품	외모	
사회적 지위 및 신분상징	계급	쌍학총배가 달린 조복, 비단철릭, 원삼, 도포	악선관, 큰머리			
	직업	군인	갑옷	투구	장검, 장창	구척장신
		승려	장삼, 금란가사	깎은 머리, 굴갓	목탁, 염주, 단주 구절육장, 바탕	
		백정		冠網하지 않음		
	초현실적 인물	선녀	나래옷, 선녀옷			
		신선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좋은 비단옷			좋은 풍채, 흰 눈썹과 수염
육황상제		전신에 금이 번쩍이며 이 세상 것이 아닌 옷	하얀 머리쓰개	이상한 신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이동 상징	지위 및 신분 상향 이동	은대를 풀고 금대를 맵				
	지위 및 신분 하향 이동	대례복을 못 입음, 정승의 남루한 차림, 무관 당상관의 천한 옷				
	직업 이동	속인의 검정모시 중옷	속인의 깎은 머리와 두타형 머리			
	신분 이동	소복 벗으면 백년가약..	승려의 가른 머리			
사회적 지위 및 신분위장 상징	지위 및 신분 위장	왕의 금관과 용포를 벗은 도포차림, 어사의 수수한 선비옷 · 폐립팔이 · 검정장의, 종의 정차관, 도적의 역줄옷과 비장옷, 양반부녀의 여자 중 옷, 관직자가 미복차림을 하나 머리의 육장식으로 위장 실패	속인에게 중옷을 입힘	속인에게 상투를 자르고 고깔을 씌움		
	성위장	관장의 너울, 어사의 검정장의				

59) 김현룡, 전계서, “이광덕”, 제4권, pp.332-333.

어사의 신분위장을 상징하지만, 어사의 하얗고 거칠지 않은 손과 다른 등장인물이 공손하게 옷을 입혀주는 태도 등으로 신분위장에 실패했다. 이상에서 신체특성이 신분위장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朴鑑』⁶⁰⁾에는 신분위장과 신분위장이 노출되는 경우가 잘 나타난다.

조선후기 탐리(倉吏)였던 박당은 매우 교활하여 암행어사 일행의 갓을 모두 훔친 다음날, 일정한 표시를 한 갓을 많이 지고 어사의 숙소 앞에서 갓을 팔았다. 어사일행은 옷을 바꾸어 입고 위장을 하여 고을에 들어왔지만 박당이 판 갓을 쓰고 고을에 들어와 고을 사람들은 갓을 보고 어사일행을 모두 알아보았다.

설화의 내용에서 어사일행이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은 신분위장의 상징이지만, 박당이 어사일행의 갓을 훔친 후, 미리 표시한 다른 갓을 그들에게 팔아 어사일행의 신분을 고을 사람들이 알도록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사일행의 신분위장을 위한 목적이 실패로 끝난다.

『이항복』⁶¹⁾에는 이항복의 微服차림과 머리의 옥장식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이항복이 시골에 풀러나 있을 때 미복(微服) 차림으로 신분을 위장하고는 소양강에서 배를 탔다. 이 때 같이 탄 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모욕을 줬는데 그중 이항복 머리의 옥장식을 보고는 뇌물 바치고 벼슬업은 사람이 아니냐고 놀렸다고 한다.

미복차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언가를 몰래 살펴러 다닐 때에 입는 수수한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것이다. 한편, 옥장식은 옥관자를 말하는 것으로 망건의 줄을 넘기는데 쓰이는 수식물이다. 관자는 지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달랐으므로 재료로 쓰인 玉을 통해서 옥관자는 높은 지위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항복이 微服차림으로 신분을 위장하려 했지만, 옥관자가 갖는 지위상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등장인물의 신분위장의 의도가 실패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설화에 나타나는 복식을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복식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 및 신분 상징을 찾아서 상징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는 『한국 구비문학 대계』에서 26편, 『한국문헌설화』에서 14편이 발췌되어 총 40편의 설화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의 상징은 계급, 직업, 초현실적 인물을 상징하는 복식과 외모특성을 통해서 나타났다. 계급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왕의 익선관, 백관의 조복·홍배·비단철릭, 士人の 정자관·도포, 사인부녀의 원삼과 큰머리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군인의 구척장검, 장창, 갑옷, 투구 등과 승려의 깎은 머리, 승복, 중옷, 납의, 장삼, 굴갓 등의 복식과 부속품이 있었으며, 백정의 冠網을 하지 않은 모습 등으로 표현되었다. 초현실적 신분에 속하는 신선의 상징성으로 설화에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옷, 흰색 수염과 머리로 묘사하였으며, 옥황상제는 이 세상에 없는 전신이 번쩍거리는 금으로 된 옷, 머리에 두른 하얀 것 등으로 묘사하였고, 선녀는 나래옷으로 신분을 상징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이동의 상징은 지위나 신분의 상향 혹은 하향 이동과 직업이동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위 및 신분위장의 상징은 지위 및 신분위장, 性위장, 직업위장으로 나타났으며, 왕과 어사의 미복차림은 신분위장의 대표적인 예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설화에서는 등장인물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을 상징, 이동, 위장하는데 있어 복식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의 상징, 이동, 위장에 복식상징성이 많이 나타난 점은 조선시대의 사회구조가 신분형 체제였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 구분의

60) 상계서, “박당”, 제4권, p.441.

61) 상계서, “이항복”, 제1권, p.105.

도구로 가시성이 높은 복식을 사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진행시, 설화가 갖는 구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구술이나 기록 내용이 정확하지 못한 자료의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상징분석에 있어서 전통설화는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이 다른 현재의 우리들의 잣대로 분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징의 다의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상징의 해석이 분석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본다.

전통설화는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직업, 관습, 도덕, 종교 등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과 인성이나 기분 등의 심리적 측면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통설화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다른 측면의 복식상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태곤 외 5인 (1995). *한국구비문학개론*. 서울: 민속원.
- 김현룡 (1998). *한국문학설화*.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김희선 (1994). Pearl S. Buck 소설의 복식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아출판사 (1983). *동아 새국어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박현국 (1992). 설화의 신화적 구조와 상징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원룡 (1993). *나뭇꾼과 선녀설화연구*. 서울: 집문당.
- 배중탁 (1987).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평근 역 (1998). *신화비평과 신화분석-심층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살림출판사.
- 이유경 (1993). Charles Dickens 소설에 나타난 복식상징성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덕순 (1970).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덕순 외 3인(1971). *구비문학개설*. 서울: 일조각.
- 진형준 역 (1983). *상징적 상상력*.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최명관 역 (1988). *인간이란 무엇인가: 문학·철학서설*. 서울: 서광사.
- 최인화 (1970). *A Type of Korean Folktales*. 동경: 홍문당.
-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8). *한국구비문학대계*.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Encyclopedia of Sociology* (1992). Vol. 1,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1968), 10. New York: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 Kefgen, M. and Specht, P. T (1972).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Kim, Jin Goo (1977). "Korean Costume: An Historical Analysi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Mukerjee, R (1959). *The Symbolic Life of Man. Bombay: Hind Kitabs Limites*.
- Ricoeur, P (1967). *The Symbolism of Evil*. New York: Harper and Row.
- Roach, M. E. and Eicher, J. B. (1973). *The Visible Self: Perspectives on Dres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Roach, M. E. and Eicher, J. B. (1992). "Dress and Identity,"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4).
-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2nd. ed. Vol. 10. Oxford: Clarenton Press.
- 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 (1985). London: Routledge and Kefgen Paul.